

아트 홀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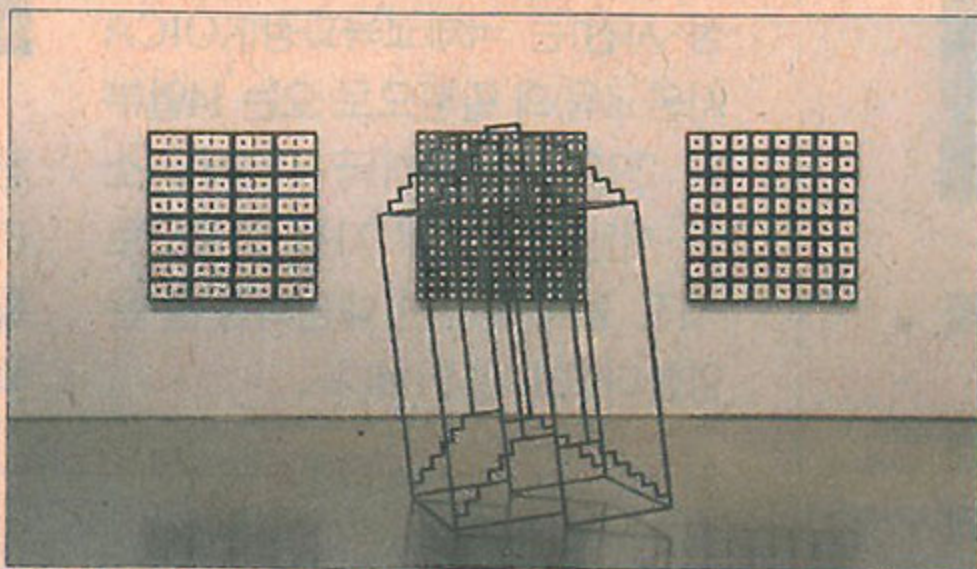
“돌이켜보면 나는 늘 돌이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.”

중견작가 홍승혜(55)가 자신의 과거 대표작들을 토대로 크기와 재료를 달리한 신작들을 개인전 ‘회상(回想)’에서 선보이고 있다.

1997년부터 ‘유기적 기하학(Organic Geometry)’를 주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인 픽셀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레이어와 그리드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프레임의 변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‘돌이켰다’.

2차원의 픽셀을 3차원의 기하학적 도형

언제까지 돌이켜보기만 할텐가...



홍승혜, '회상' 설치전경, 김상태 사진. [사진제공=국제갤러리]

으로 재현한 작품을 통해 유기적인 것, 살아있는 것은 모두 변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. 과거 작품에 대한 메타포로써 전시 공간은 모두 흑백으로 채워졌다.

전시는 8월 17일까지 삼청로 국제갤러리

김아미 기자/amigo@heraldcorp.com